

여야 예산안 대치 쟁점 평가

재수정·감세법안 정국 분수령

경제위기 대처 입장 차...한 "강행처리 불가" 압박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의 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여야간 협조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는 선(先)대책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일부터 시작되는 '계수조정소위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진

행하는 것은 물론 강행 처리도 불가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재수정 예산안 제출 여부=정부는 지난달 초 금융위기 상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경제상황이 다시 변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수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이 ▲2%대 성장률 전망에 따른 세수 감소 ▲5조6천억원대의 지방재정 감소 ▲일자리 창출 대책 결여 등 '4대 무대책 예산'이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세법안=150여건에 달하는 감세법안도 예산안 통과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법안심사와 예산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 상임위에서 조직적인 감세법안 등 예산부수법안 심사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강행 처리 가능성=민주당은 4대 분야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고 밀어붙일 태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이 한나라당에 왜 172석을 줬는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올 것"이라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처리 시기=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 강행 처리도 불사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는 선진당도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일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사를 해도 20일 가량은 족히 걸리는 만큼 잘해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 FTA 농업예산 先집행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되지 않더라도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내년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미 FTA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에는 2008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으로 3천801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사용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올해 처리 안 돼도 다른

나라와 FTA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설행태와 같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FTA 관련 예산에 부대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미 FTA 보완대책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4천729억원의 예산 가운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예산은 ▲축사시설현대화(1천422억원) ▲시설원에 품질개선(522억원) ▲신선관리가공시설현대화(152억원) ▲경영체등록제(148억원) ▲한식세계화(100억원) 등이다. 다만 농산물 가격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직접피해보전액 1



국회 운영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문관에서 1차 상시국회, 상시국감 도입에 이어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2차 제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욱 서울대학교수, 위원장, 임준훈 홍익대학교수.

3천840원은 실제 FTA가 체결돼야 유보하다가 한미 양국에서 모두 비준동의안이 발표되면 집행할 방침이다. 산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뒤 집행을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건평 씨 소환 임박

검찰, 노씨 성인 오락실 지분 소유 단서 포착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이번 주 소환키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수사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측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 1~2일께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세종증권의 로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 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원의 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욱(구속)사장으로 부터 '성공보수'로 받은 30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성인 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

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동생인 정광용씨가 운영한 성인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넘겨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년여의 영업기간 동안 10여 차례 단속을 받아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이들이 주장함에 따라 실제 얼마의 이익금을 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락실을 관리한 정씨 형제의 또 다른 동생 추삼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원에 대한 추적을 거의 완료했으며 이 돈을 차명계좌로 쪼개 제과포스그룹 회장권을 샀다가 파는 등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2005년 7월 세종증권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한 농협 내부의 보고가 있었고 그해 12월6일 기본합의서 체결, 12월27일 양해각서

체결, 2006년 1월28일 본계약 체결, 같은 달 31일 인수대금 지급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가 급하게 추진된 것은 2006년 2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할 때 감독기관인 당시 농림부 뿐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농협이 당시 박홍수(올해 6월 타계) 장관 등에게 로비한 정황, 증권선물거래소가 2005년 세종증권 추가 급등 의혹을 조사한 뒤 무혐의 종결하는 과정에서 세종캐피탈 측의 로비가 이뤄진 정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과 자회사인 휴먼스 등의 회계자료와 주식매매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사전작업이 완료되면 이번 주 중 박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직불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

감사원,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키로

감사원이 1일까지 국회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직급·소득별로 분류된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비료 구매 등의 실적이 없어 '비경제자'로 분류된 감사원의 28만명 명단에는 공무원 4만400명, 공기업 직원 6천200명이 포함돼 있어 공개됐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애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 대로 고위공직자, 정치인, 공기업 임원 등의 명단은 모두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각종 자료를 비교해 부당 수령이 확실한 3급 이상의 공직자는 확인되는 대로 이름을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그 중 고위공직자 등은 청문회의 증언으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누가 부정수령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특위 임무"라며 "직불금 부정수령이 확인된 공직자의 명단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에 특위 차원의 합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운석 의원은 "10달간 뱃속에서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조사가 끝나야 명단 공개도 논의할 수 있다"며 "공개는 특위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국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국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비번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 국내영고시학원 □ 수강문의 광주 (대)529-0090

=無等은 지금도 옛 명성 그대로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청강한영)=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세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
정육무세원찰공관정진호지방술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안내

개강 12월 1일(주)이강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美·國)부목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실함.

www.mdgosi.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8(주)야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처음시작하신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행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학강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명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주부반·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간반,야간반)

직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권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국비지원 재원 2명 원탁 ☎ 971-0002 (구)메트로 호텔 옆 흥주은행 4F